

##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신 하 랴 · 염 미 선\*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회화작품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알폰스 무하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무하의 회화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회화작품들이 어떻게 의상에 재해석되어 나타났는지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폰스 무하는 유럽 미술사에서 중요한 미술사조 중 하나였던 아르누보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특유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아르누보 스타일의 환상적인 작품들을 제작하였는데 그의 회화작품들은 크게 포스터, 장식 패널, 슬라이드 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과 강한 장식적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각각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형태 특성에 나타난 부드러운 곡선의 사용 및 뚜렷하고 간결한 선의 표현, 그리고 레터링의 활용과 색채 특성에 나타난 밝고 화사한 색채, 구도 특성에 나타난 비대칭 요소들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4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작품 총 8개의 디자인을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감성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통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 패션디자인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염미선, [msy0027@gmail.com](mailto:msy0027@gmail.com)

접수일: 2019년 11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6일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패션 산업은 3D프린터, 빅 데이터, 증강 현실 등과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간편하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기능과 편의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와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디자이너의 감각에 맞게 재탄생시킨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에 나타난 이념과 조형적 특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대 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독창적 아이디어 발상의 한 방법으로써 회화와 의상의 접목을 통해 기존의 획일화 된 패션에서 탈피한 새로운 감각의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는 유럽 미술사에서 중요한 미술사조 중 하나였던 아르누보(Art Nouveau)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회화, 삽화, 조각뿐만 아니라 보석, 인테리어 장식, 패션디자인 등에서도 이름을 떨친 거장이다. 그의 작품은 낭만적인 고전의 요소에서부터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작품까지 특유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하만의 독특한 선묘를 통해 풍성하면서도 기품 있게 표현되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무하의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을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Yoon(2003)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하여 가방, 구두와 같은 패션 소품을 제작하였고, Kim(2016)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아르누보적 헤어디

자인을 연구하였으며, Woo(2015)는 알폰스 무하의 회화 중 『월계수』, 『백일몽』, 『황도 12궁』, 『Job』, 『사계』 중 『봄』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아트 마스크(art mask)를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해 알폰스 무하 작품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르누보 양식의 대가라고 알려진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회화작품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의 작품에 나타난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 연구에서는 무하의 생애와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선행연구를 비롯한 국내·외 문헌, 학회지,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무하의 회화작품인 포스터, 장식 패넌, 슬라브 서사시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회화작품들이 어떻게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작품 제작에 응용하였다. 작품 제작은 알폰스 무하의 회화작품 중 포스터 작품 5점과 장식 패넌 1점, 작품 총 6점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총 8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 텍스타일 디자인은 회화작품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 배열, 중첩, 재배열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 II.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

### 1. 알폰스 무하의 생애

알폰스 무하의 본명은 알폰스 마리아 무하(Alphonse Maria Mucha)로 알려져 있으며, 1860년 7월 24일 체코 모라비아(Czech Moravia)의 ‘이반치체(Ivancice)’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다(Naver encyclopedia, n.d.a).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던 무하는 그릴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림을 그리곤 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였던 아말리에 말라(Amalier Marla)는 어린 무하의 목에 연필을 걸어주어 그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무하가 늘 마주치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미사와 음악, 수려한 색채 문자로 쓰인 고서들은 그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예술적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Kim, 2016). 무하는 1881년 공방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빈의 유명한 역사 화가이자 장식화가인 한스 마카르트(Hans Markart)의 회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의 문하생이 된다(Kim, 2016). 이때 마카르트의 회화에는 식물이나 나무를 배경으로 장식한 여성 인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하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이후 그의 작품에서도 화려하고 섬세하게 양식화된 꽃이나 식물이 여성을 위한 장식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Kim, 2012). 1882년 모라비아에서 초상화를 그리던 무하는 그 지역의 대주주인 쿠헨 벨라시(Khuen Belasi) 백작의 지원을 통해 빈의 미술아카데미(The Academy of Fine Arts)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는다(Kim & Kwon, 2015). 이후 1895년, 그가 그린 당대 파리 연극계의 슈퍼스타인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와 르네상스 극장의 홍보를 위한 최초의 석판화 포스터 『지스몽다(Gismonda)』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인쇄업자 F. 샹프누아(F. Champenois)

와 광고 포스터 및 장식 포스터 제작을 위한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Woo, 2015). 이렇게 파리에서의 입지를 굳힌 무하는 이후 5년 동안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였으며 프라하, 뮌헨, 런던, 뉴욕 등에서 무하 순회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무하 스타일(Mucha Style)’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포스터와 장식 패넬, 슬라브 서사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무하는 1938년 뮌헨 협정으로 그의 조국이 독일 나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이듬해 봄,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Gestapo)에 체포된다(Kim, 2012). 수차례의 심문 끝에 석방된 무하는 집으로 보내졌으나 당시 고령에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받아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 되어 이후 1939년 7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 2. 시대적 배경

#### 1) 아르누보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아르누보는 1980년경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건축·공예의 새로운 양식 중 하나로 회화뿐만 아니라 삶 속의 예술에 관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일시적이나 마나 전 유럽을 휩쓸었다(Naver encyclopedia, n.d.b). 아르누보 양식은 1895년 12월 사무엘 빙(Samuel Bing)이 새로운 작업 방향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파리에 세운 화랑 ‘메종 드 라르누보(Maison de l'art Nouveau)’에서 유래하였으며(Yoo, 2000), 이 화랑의 실내장식에서 보이는 화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신선한 감각의 양식이 아르누보로 인식되어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다(Shin & Yoon, 2001). 아르누보 양식은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을 추구하였는

데,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미의 탐구를 지향하였고 신비주의를 지향하여 물체의 형성요소, 즉 선, 면, 색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Park & Han, 2014).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은 무하가 1895년 1월 1일에 발표한 광고용 포스터 『지스몽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며, 당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었던 이 포스터는 처음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무하 스타일’이라 불렸으나 이는 나중에 아르누보로 알려졌다(Wikipedia, n.d.).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동적인 감각의 독창적인 C자 또는 S자 형태의 유연하고 흐르는 듯 역동적인 동선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Shin & Yoon, 2001), 꽃이나 식물과 같이 자연에서 얻은 모티프를 줄기를 연상시키는 곡선으로 조형하여 대칭을 파괴하는 특징을 갖는다(Chin, 2017). 이러한 아르누보의 주요 장식 패턴으로는 꽃과 식물, 여인이 대표적이며(Yoo, 2000), 동물에서는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공작과 사랑과 순수의 상징인 백조가 많이 사용되었고, 곤충에서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애벌레, 잠자리, 나비와 같은 모티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Kim, 2012). 이 밖에 아르누보 양식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는 자포니즘(Japonism)을 꼽을 수 있는데, 아르누보는 일본 판화의 영향으로 고도로 세련된 여백의 처리와 공간의 이용, 명암이나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처리 기법, 선과 윤곽의 강조를 배우게 되었으며(Yoo, 2000), 또한 동양 미술의 특색인 수직 방향의 문자 구성은 포스터와 삽화, 그래픽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Yoo, 2000).

## 2) 동시대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활동상

무하는 파리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포스터와 장식 패넌, 삽화 등 그래픽 아트(graphic art)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접목한 아르누보 양식을 구현시켰다. 당시 무하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그래픽 아

트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석판 인쇄술을 통한 포스터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그래픽 아트 부문에서는 무하 외에도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들이 더 있었다(Kim, 2012). 먼저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영국의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sley)를 말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그래픽 아트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가늘고 우아하게 늘어진 선으로 병약한 에로티시즘을 결합했으며(Yang, 1997), 율동적이고 절묘한 선, 대담하고 추상적인 패턴과 극적인 장식으로 환상과 신비주의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Yang, 1997). 또한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포스터 작가들로는 ‘포스터의 아버지’로 불렸던 줄 세레(Jules Cheret), 툴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등이 있다. 먼저 세레는 포스터에 최초로 아르누보 양식을 도입시킨 인물로, 강한 색채와 단순한 윤곽선, 그리고 대담한 레터링(lettering)으로 아르누보 포스터의 특징을 공식화 하였으며(Ferebee, 1970/1983), 로트렉은 인상파 화가들과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아 힘 있고 명확한 윤곽선과 명암의 대비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정립하여 포스터를 예술적 위치로 올려놓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 밖에 수많은 잡지표지와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여 아르누보 양식을 미국에 보급한 윌리엄 헨리 브레들리(William Henry Bradley)와 외젠 그라세(Eugene Grasset) 등이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포스터 작가들이다.

## 3) 세기말 파리의 여성상

무하가 활동하던 세기말적 상황에서 등장한 팜므 파탈(Femme Fatale) 여성상은 다양한 예술적 테마로 등장해왔으며(Jung, 2015), 성서에 기록된 ‘살로메(Salome)’라는 여인은 이러한 팜므 파탈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Jung, 2015). 특히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희곡 『살로메』의



Figure 1. 오브리 비어즐리의 살로메, 1894. Figure 2. 프란츠 폰 슈투크의 죄, 1893.



From Lee, (2005). p. 85.



Figure 3. 알폰스 무하의 살로메, 1897.

From Kim, (2012). p. 122.

삽화를 담당한 비어즐리의 살로메는 팜프 파탈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Lee, 2005). 피가 줄줄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입을 맞추는 비어즐리가 그린 <Figure 1>의 ‘살로메’의 모습이나 <Figure 2>의 프란츠 폰 슈투크(Franz von Stuck)의 『죄』가 표현하는 매혹적인 자태는 팜프 파탈의 치명적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Lee, 2005). 이처럼 팜프 파탈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그녀들의 이미지는 퇴폐적이고 신경질적이며 공포스럽기까지 한 반면(Jang, 2017), 무하가 표현한 살로메는 앞서 언급했던 여인상들과는 달리 부드럽고 연약하며 처연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Figure 3). 무하는 매혹적인 여인을 로맨틱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함으로써 남성들의 위기감을 달래주며 상업성이 추구하는 소비 창출로 연결시켰다(Kim, 2012). 이러한 무하의 상업미술은 묘사 대상의 균형미를 고려한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전통 미학의 형식에서 탈피해 고도로 스타일화되고 이상화된 여성을 탄생시켰다(Kim, 2012).

### 3. 알폰스 무하의 작품 세계

알폰스 무하는 다양한 시대의 양식적 요소들을 당대의 아르누보 장식미술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완성하였으며(Kim, 2016), 바로크(Baroque), 비잔틴(Byzantine), 네오고딕(Neo-Gothic) 미술 양식 등을 가미하여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의 파리에서 자신만의 특색 있는 화풍과

함께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을 전개하였다. 무하의 이러한 파리 아르누보 시절 작품들은 화사하고 밝은 색채, 뚜렷한 외곽선,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미를 특징으로 하며(Kim, 2012), 그의 디자인 활동은 포스터와 장식 패널을 포함한 회화와 인테리어, 가구, 보석 등의 폭넓은 장르와 아이템에 걸쳐있다. 그중 무하가 남긴 작품의 상당량은 상업 미술로 크게 포스터와 장식 패널로 구분되는데, 상업과 예술이 결합된 감성 마케팅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소비사회 파리에서 무하는 광고시대의 주역이 되어 아티스트로서의 절정을 맞이한다(Kim, 2012). 무하의 포스터 대표작 중 하나인 <Figure 4>의 『옴 담배종이 포스터 I』은 요셉 바르두 회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옴 모노그램(Job Monogram) 무늬를 배경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Tomoko & Seon, 2016). <Figure 5>는 당시 가장 유명한 갤러리였던 ‘살롱 데 상(Salon des Cent)’의 제20회 전시회 포스터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폭포처럼 굽이치는 금발이 후광처럼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반라의 여인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Ulmer, 1997/2005), 무하는 이 포스터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훗날 ‘살롱 데 상’에서 자신의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Figure 6>은 ‘살롱 데 상’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로, 화면을 가로지르는 머리카락을 통해 장식성을 강조하고,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모라비아식 머릿 수건과 체코의 민속 미술에 등장하는 데이지(Daisy) 꽃을 통해 그가 자신의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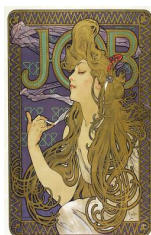


Figure 4. 욕 담배종이  
포스터 I, 1896.  
From Tomoko & Seon. (2016).  
p. 150.



Figure 5.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1896.  
From Jang. (2017). p. 68.



Figure 6.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 1896.  
From Jang. (2017). p. 67.



Figure 7. 르페브르 위틸  
삼페인 파자 포스터, 1896.  
From Tomoko & Seon. (2016).  
p. 162.

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7>의 『르페브르 위틸 삼페인 파자』포스터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와 숙녀들의 모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실내장식을 통해 위틸(Utile)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계층과 삶의 방식을 전달하고 있는데(Jang, 2017), 그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 제품이 상류사회의 사교모임에서 애호되는 고급 제품임을 암시하고 있다(Kim, 2012). 이처럼 무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프랑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신의 작품을 접목해 아트 비즈니스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산업화와 대량생산 시대에 맞추어 변화를 흡수하고 자신의 영감을 작품 속에서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Kim, 2012).

무하의 상업미술 작품 중 장식 패넬은 대부분 네 장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튼튼한 종이나 실크에 작품을 인쇄해 그림처럼 틀에 끼우거나 실내용 칸막이를 장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다량으로 인쇄되어 널리 배포하였다(Ulmer, 1997/2005). 이러한 장식 패넬은 사물이나 개념을 의인화하기 좋아했던 무하의 기호를 보여주며, 첫 4부작인 『사계 I (1896)』에서 시작해, 『꽃(1898)』, 『예술(1898)』, 『보석(1900)』, 『별(1902)』 연작 등으로 이어진다(Ulmer, 1997/2005). 그중 무하의 첫 번째 연작 장식 패넬 시리즈인 『사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각 계절을 4개의 패넬에 의인화한 작품으로, 이 작품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부터는 1897년부터 1900년까지 수많은 변형 작품과 새로운 작품

들이 등장하였다(Tomoko & Seon, 2016). 1896년에 제작된 <Figure 8>의 『사계 I』은 높은 명도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감과 자연 형태의 우아한 곡선,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 모티프들과 오묘한 표현을 짓고 있는 여인들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아르누보 양식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00년에 새롭게 그려진 『사계 II』(Figure 9) 또한 부드럽고 화사한 파스텔 톤의 색채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인물과 함께 표현된 식물의 종류와 배경,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노출 정도까지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포스터와 장식 패넬을 통해 파리와 뉴욕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을 거둔 무하는 상업화가로의 성공을 뒤로하고 조국인 체코로 돌아와 자신의 민족인 슬라브족의 정신을 반영한 세기의 작품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Figure 10-11>의 『슬라브 서사시(Slav Epic)』로, 20점의 연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20년의 제작기간에 걸쳐 탄생하였으며, 고대부터 이어진 슬라브인들의 종교와 문화, 역사에 관한 각각의 장면들이 잘 짜인 각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6 × 8m 이상의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었다(Jang, 2017). 『슬라브 서사시』는 무하가 이전에 그렸던 작품들처럼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 그의 조국에 대한 꿈과 소망, 그리고 애국심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데에서 그의 다른 작품들과 구분되며, 체코와 다른 슬라



Figure 8. 사계 I, 1896.  
From Jang. (2017).  
pp. 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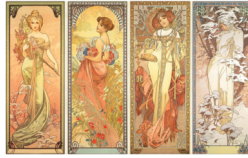


Figure 9. 사계 II, 1900.  
From Tomoko & Seon. (2016).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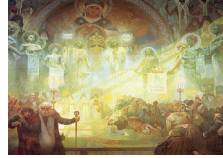


Figure 10. 『The Holy Mount Athos』, 1926.  
From 'The Slav Epic' cycle  
No.17.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Figure 11. 『Introduction of the Slavonic Liturgy in Great Moravia』, 1912.  
From 'The Slav Epic' cycle No.3.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브 민족들의 아픈 역사와 여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 모두를 표현하였다. 무하는 당시 이 작품이 슬라브 민족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코 슬로바키아인들이 독립의 열망과 자유정신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과 강한 장식적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크게 포스터와 장식 패널, 슬라브 서사시로 구분되는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형태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 나타난 형태 특성은 그만의 독특한 무하 스타일을 통해 재해석되어 표현된 인물 또는 주제와 이를 표현한 풍부한 장식 요소들, 그리고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선의 표현과 장식 및 메시지 전달의 목적을 갖는 레터링의 활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무하 스타일’로 불리는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여성을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Figure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상과 원형을 결합한 풍성한 장식 모티프, 채찍 모양의 선과 그리고 다양한 기하학 패턴들을 특징으로 한다(Tomoko & Seon, 2016). 이때 무하는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뚜렷하면서도 두꺼운 검은 색 윤곽선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만화 같은 느낌을 더하여 독특한 무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의 포스터를 구성하는 여성들은 유동적인 곡선을 통해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와 함께 포스터를 보는 이를 매혹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작품 상단 또는 하단에 레터링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포스터가 갖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을 더하였다.

무하의 장식 패널 작품에 나타난 형태 특성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화려하게 표현된 꽃과 나무, 잎, 줄기 등과 같은 자연물, 그리고 뚜렷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외곽선을 말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Figure 13>의 『보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의 장식 패널은 중앙에 주 모티프가 되는 아름답게 표현된 인물이 있고 그 주위를 식물들이 화려



Figure 12. 라트라피스텔  
포스터, 1897.  
From Tomoko & Seon. (2016).  
p.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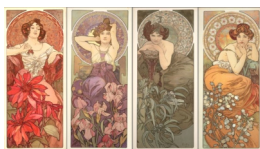


Figure 13. 보석, 1900.  
From Tomoko & Seon. (2016).  
pp. 206-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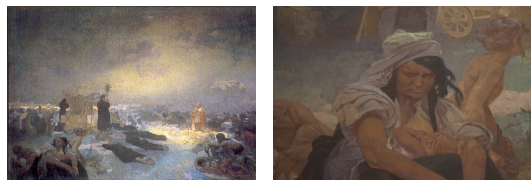


Figure 14. 『After the Battle of Vitkov』, 1916.  
From 'The Slav Epic' cycle No. 11. (n.d.).  
<http://www.muchafoundation.org>

하게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만발한 꽃들과 인물, 장식문양 등이 유동적이고 섬세한 곡선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흠날리는 옷자락과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하게 표현된 식물 모티프들의 모습을 통해 보다 장식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식물 줄기와 같이 유기적으로 표현된 곡선들은 굵고 명확하게 표현된 강렬한 직선과 만나 조화를 이루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슬라브 서사시』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무하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뚜렷하고 두꺼운 검은색의 윤곽선 표현이 아닌 얇고 섬세한 부드러운 선의 표현과 모티프가 되는 주요 인물들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무하의 포스터와 장식 패널 작품의 대부분은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여인과 이를 둘러싼 장식 요소들을 통해 밝고 이상적이며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이미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 반면, 슬라브 서사시의 경우 <Figure 14>와 같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남녀노소 모두가 등장하며, 때로는 절망적이거나 두려움에 찬 표정, 경이로운 표정 등 주로 어둡고 심오한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을 묘사하였다.

## 2. 색채

무하가 활동하던 당시 대부분의 포스터 작가들

은 강렬한 원색적인 색채를 사용한 포스터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등장한 무하의 포스터들은 기존에 유행하던 포스터들과는 달리 lt, lig 색조와 같이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표현된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무하는 이처럼 아르누보 양식에서 흔히 보이는 밝고 화사한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몽환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분위기의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하는 <Figure 15-16>과 같이 파스텔톤의 다양한 컬러를 주조색으로 배경을 표현하고,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들은 배경보다 조금 짙거나 밝게 표현하여 그 경계는 두껍고 진한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포스터의 특성상 화면의 상단과 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레터링은 뚜렷한 컬러로 표현한 후 그 외곽 부분은 까만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명시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무하의 장식 패널 작품에서 느껴지는 색채 특성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며, 작품을 구성하는 복잡한 모티프들과 어우러져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대표적인 장식 패널 연작 중 하나인 <Figure 17>의 『네 개의 꽃』과 <Figure 18>의 『파일과 꽃』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p, b, lt 톤의 색조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w와 파스텔 톤의 R, Y, BG, GY, PB 색상들의 배색을 통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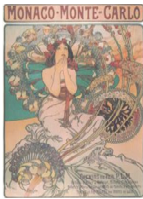


Figure 15. 모나코 몬테 카를로 P.L.M. 철도서비스 포스터, 1897.  
From Kim. (2012). p.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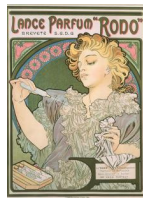


Figure 16. 뿌리는 향수 로도 광고포스터, 1896.  
From Jang. (2017). p. 87.



Figure 17. 네 개의 꽃, 1898.  
From Jang. (2017). p. 76.



Figure 18. 과일과 꽃, 1897.  
From Jang. (2017). p. 13.

사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중 그의 장식 패널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색채는 다양한 톤의 R 색상으로, 이를 통해 여성스러운, 연약함, 부드러움, 따뜻함,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꽃과 함께 어우러져 보다 화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슬라브 서사시』에 나타난 색채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신비로운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은 대부분 어두운 배경을 통해 신비로우면서 이지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어떤 작품은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바탕색으로는 주로 dk, g, d 톤의 어두운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B, PB, P, BG 색상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Figure 19> 작품을 보면 인물들이 입은 새하얀 옷이나 이들을 비추는 빛의 표현 등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보다 신비롭고 장엄한 느낌을 더하였으며, 그 밖에 작품에서는 Y, YR, R의 어두운 색조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슬라브 서사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색채 특성으로는 인물들의 명암 차 또는 색채의 변화 따라 현실과 상징을 구분시키고 대비와 빛을 표현한 흰색을 기초로 하여 명료한 색채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슬라브 서사시』연작 중 마지막 20번 작품인 <Figure 20>에서 알 수 있듯이 슬라브 역사의 여러 측면을 4가지 색상으로 사용하여 분류하며 B, R, Y, Bk 색상을 사용하여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문화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슬라브

서사시』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면의 상징성과 사상성을 표현하는 구성요소는 우울한 푸른빛으로 표현하거나 중요한 인물들은 희미한 후광을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 3. 구도

무하의 포스터는 대체로 화면 상단부에 레터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중심에 있는 여인의 머리, 그리고 그 뒤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 또는 반원 형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꽃과 모자이크,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 문양이 있으며, 주 모티프가 되는 여인의 전신이 수직으로 길게 배치된 구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무하의 작품은 심리적으로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대칭 구도가 아닌 비대칭 구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Figure 21>과 같이 인물이 이루고 있는 수직 구도가 작품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레터링, 포스터의 외곽선과 만나 화면의 여러 곳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수직과 수평의 교차에 의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또한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장식요소 및 기본 틀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장식성이 강한 무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다양한 레터링과 같은 각각의 요소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구도 특성은 시선을 사로잡는 표현 수단과 전달 방법으로 비대칭 도구와 대칭적 틀을 통해 화면에



Figure 19. 『Slavs in their Original Homeland』, 1912.  
From 'The Slav Epic' cycle No.1.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Figure 20.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ity』, 1926.  
From 'The Slav Epic' cycle No.20.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역동성을 부여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Park & Han, 2014), 화면 중앙에 위한 여성상을 주 모티프로 부각시키고 배경과 레터링을 통해 장식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무하의 장식 패널에서 보이는 구도 특성은 대부분 <Figure 22>와 같이 중앙의 인물을 앉아 있는 모습, 비스듬하게 서 있는 모습, 또는 옆으로 몸을 틀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포즈를 통해 비대칭으로 구성하고 패널을 구성하는 테두리 또는 인물의 뒤로 보이는 배경을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 앞서 분석한 포스터에서 나타난 구도와 비슷하지만, 포스터와 구별되는 점은 장식 패널의 경우 대부분 테두리를 구성하는 화려한 문양이 패널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레터링이 장식적 요소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포스터와는 달리 작품의 상단 부분을 화려하게 표현한 꽃이나 나무로 장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20편의 시리즈로 표현한

『슬라브 서사시』는 20개의 작품에 따라 다양한 구도 특성을 갖는다. <Figure 23>과 같이 그림에 빼곡히 표현된 사람들은 과거 화면 중앙에 위치한 단일 인물과 이를 장식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던 그의 예전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하의 작품 속 중심이 되는 인물과 배경이 되는 인물을 명암, 또는 색채, 형태 등에 차이를 주거나 화면에 중간에 사물을 배치하여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를 사용하였는데, <Figure 23>을 살펴보면 화면 중앙에 묘사한 폭발의 순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표현된 희생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또렷하게 표현된 반면 왼쪽의 파괴된 마을의 모습들은 흐리게 표현하여 화면을 분할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로 수직 구도의 세로로 긴 작품을 그렸던 과거와는 달리 수평 구도의 가로로 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작품의 경우에는 <Figure 24>와 같이 화면의 중앙에 여백을 주어 쓸쓸하고 공허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Figure 21. 유아를 위한 네슬레 푸드 포스터, 1897.  
From Tomoko & Seon. (2016). p. 154.



Figure 22. 하루 4번의 시간, 1899.  
From Cho. (2005).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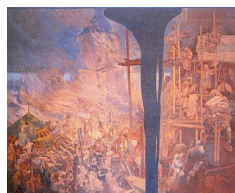


Figure 23. 『The Defence of Sziget by Nikola Zrinski』, 1914.  
From 'The Slav Epic' cycle No.14.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Figure 24. 『Jan Amos Komenský』, 1918.  
From 'The Slav Epic' cycle No.16. (n.d.).  
<http://www.muchaafoundation.org>

이와 같이 낭만적인 꿈의 세계를 창조한 무하는 그의 작품을 통해 실용미술을 순수미술의 단계로 끌어 올렸으며, 근대미술의 새로운 영역의 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Naver encyclopedia, n.d.a).

#### IV. 회화작품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현대 패션은 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패션과 결합시켜 예술에서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중 회화작품은 색채, 형태, 구도 등 패션에 적용하기 적합한 조형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현대 패션에 응용되어 왔으며, 이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회화작품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2019 S/S Collection(Figure 25)을 살펴보면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작품에서 사용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모티프들을 낮

은 채도의 플로럴 문양(floral pattern)으로 의상에 프린팅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폴록의 작품들은 드리핑(dripping)기법을 통해 역동적이고 복잡한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채도에 변화를 주거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어 붙여 재구성하는 방법, 작품 그대로를 의상에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에 활용되어 나타났다. 베르사체(Versace)의 2018 S/S Collection(Figure 26)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프를 의상 전면에 다양한 색상 및 크기로 중첩 및 반복 배열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화려하고 극적인 색감의 특징을 갖는 베르사체 특유의 감각과 어우러져 본래 워홀의 작품이 갖는 키치(kitsch)하고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모스키노(Moschino)의 2015 S/S Collection (Figure 27)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프를 여러 번 반복하여 재구성하는 표현 방법으로 의상에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그의 회화 작품은 의상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거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이미지를 대량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앤드류 지엔(Andrew Gn)의 2015 S/S Collection(Figure 28)을 살펴보면, 클로드 모네



Figure 25. 2019 S/S 비비안웨스트우드.  
From Spring/Summer 2019 Ready-to-wear Vivienne West Wood.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6. 2018 S/S 베르사체.  
From Spring/Summer 2018 Ready-to-wear Versace.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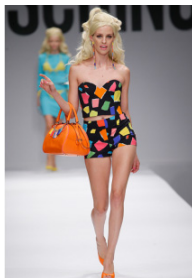


Figure 27. 2015 S/S 모스키노.  
From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Moschino.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8. 2015 S/S 앤드류 지엔.  
From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Andrew Gn.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9. 2015 S/S 도나 카렌.  
From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Donna Karan. (n.d.). <http://runway.vogue.co.kr>

(Claude Monet)의 회화 작품을 의상 전면에 프린팅하여 모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몽환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피티 회화의 작가로 잘 알려진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의 회화를 응용한 디자인도 현대 패션에 자주 나타났는데, <Figure 29>의 도나 카렌(Donna Karan) 2015 S/S Collection을 보면 바스키아의 작품에 나타난 레터링 이미지와 굵은 선을 재해석하고 작품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로 재구성한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거친 선과 레터링, 그리고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 및 원색의 풍부한 표현의 특징을 갖는 그의 작품은 주로 레터링 이미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거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프 일부를 강조한 형태로 재해석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회화작품을 패션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회화작품을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과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에 그대로 사용되어 나타나거나 회화작품에서 보여지는 사물들을 주 모티프로 추출하여 일부를 의상에 응용하기도 하고, 이를 반복 배열, 중첩, 과장, 재배열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디자인 개발

### 1. 디자인 의도 및 전개

본 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고 앞서 분석한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총 8벌의 의상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디자인 개발 과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첫째,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프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중 그의 조형성 특성이 잘 나타난 『옴 담배종이 포스터 I』,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제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와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 장식 패널 『예술』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회화 작품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에 나타난 표현 방법 중 반복 배열, 중첩 및 재배열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둘째, 어도비 포토샵 CC(Adobe Photoshop C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고 DTP(digital textile printing) 방식을 활용하여 원단을 제작하였다. 셋째, 작품 제작은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 나타난 뚜렷하고 두꺼운 외곽선의 인물 표현과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티프, 그리고 레터링에서 느껴지는 만화적인 이미지와 장식 패널에서 보여지는 화사한 색채 표현 및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구도 특성에 나타난 비대칭 요소를 실루엣에 적용하여 스트리트 캐주얼 스타일(street casual style)과 페미닌(feminine)한 요소를 혼합한 트렌디한 감성의 룩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1과 디자인 2는 『제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와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를 위한 디자인』에 등장하는 인물 및 레터링을 주 모티프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의상 전면에 프린트하였으며,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 특성 중 하나인 두껍고 진한 윤곽선과 레터링 모티프를 반복 배열 및 재구성하여 만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몽환적인 분위기인 여인의 모티프와 It 색조의 R, YR, B 색상을 활용하여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때 디자인 1은 오버핏의 후드 탑과 하이웨이스트 팬츠로 구성하였으며, 디자인 2는 오버핏의 아우터와 부츠 컷 팬츠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3과 디자인 4는 무하의 포스터 작품 중 『옴 담배종이 포스터 I』,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및 레터링 이미지를 주 모티프로

추출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작품 전면에 배치하여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웨어로 표현하였다. 이때 무하의 포스터 작품의 조형적 특성 중 하나인 비대칭 구도를 의상에 적용하여 비대칭적인 실루엣으로 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옴 담배종이 포스터 I』에서 사용된 다양한 톤의 P, R, Y, YR, GY 색상과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티프를 추출하여 몽환적이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때 작품Ⅲ은 아우터로 제작하였으나 원피스처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4는 아우터와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5와 디자인 6은 무하의 장식 패널 시리즈 중 ‘예술’을 주 모티프로 사용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상의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작품에 나타난 lt 색조의 R, GY, G, YR 컬러를 활용하여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두 작품 모두 상의의 경우 앞판과 뒷판의 길이가 다른 비대칭 실루엣으로 제작하였으며, 어깨선과 네크

라인, 밑선 등을 모두 곡선으로 처리하여 무하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때 디자인 5는 탑, 브라 탑, 팬츠로 구성하고, 디자인 6은 탑과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7과 디자인 8은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이미지와 포스터에 나타난 레터링 및 과자 패키지 이미지를 주 모티프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작품 전면에 배치하여 구성하였으며, 작품의 색감과 모티프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디자인 7은 캐주얼한 감성의 후드가 달린 오버 핏 점프 슈트로 구성하고, 디자인 8은 오버핏의 롱코트 아우터로 구성하였으며, 양쪽 라펠의 디자인을 다르게 구성하여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서 보여지는 구도 특성과 같이 비대칭과 대칭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Table 1. Fashion Design Development using Alphonse Mucha's Works.

분류	모티프 이미지	디자인 변형	텍스타일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1	 <p>Figure 30.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 1896. From Jang. (2017). p. 67.</p>		 <p>Figure 32. 디자인 1의 텍스타일. Captured by author. (November 14, 2018)</p>	 <p>Figure 33. 디자인 1 착용.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2	 <p>Figure 31.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1896. From Jang. (2017). p. 68</p>	 <p>디자인 1, 2 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34. 디자인 2의 텍스타일. Captured by author. (November 14, 2018)</p>	 <p>Figure 35. 디자인 2 착용.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분류	모티프 이미지	디자인 변형	텍스타일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3	 <p>Figure 36. 욕 담배 종이 포스터 I, 1896. From Tomoko &amp; Seon. (2016)., p. 150.</p>	 <p>디자인 3, 4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38. 디자인 3, 4의 텍스타일. Captured by author. (November 14, 2018)</p>	 <p>Figure 39. 디자인 3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4	 <p>Figure 37.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1902. From Tomoko &amp; Seon. (2016)., p. 153.</p>	 <p>디자인 3, 4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40. 디자인 4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p>Figure 41. 디자인 4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5	 <p>Figure 41. 예술, 1898. From Jang. (2017). p. 74</p>	 <p>디자인 5, 6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43. 디자인 5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p>Figure 44. 디자인 6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6	 <p>Figure 45. 르페브르 위틸 샴페인 파자 포스터, 1896. From Tomoko &amp; Seon. (2016)., p. 162.</p>	 <p>디자인 7, 8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47. 디자인 7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p>Figure 48. 디자인 8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7	 <p>Figure 46. 르페브르 위틸 샴페인 파자 포스터, 1896. From Tomoko &amp; Seon. (2016)., p. 162.</p>	 <p>디자인 7, 8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48. 디자인 8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p>Figure 49. 디자인 8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디자인 8	 <p>Figure 49. 르페브르 위틸 샴페인 파자 포스터, 1896. From Tomoko &amp; Seon. (2016)., p. 162.</p>	 <p>디자인 7, 8의 응용 모티프</p>	 <p>Figure 51. 디자인 8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p>Figure 52. 디자인 8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December 21, 2018)</p>

## VI.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폰스 무하는 세기말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포스터 3대 거장 중 한 사람으로 포스터뿐만 아니라 장식 패넬 엽서, 달력, 책 표지와 같은 모든 회화 분야를 아우르며 아르누보 스타일의 환상적인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알폰스 무하의 회화작품은 크게 포스터와 장식 패넬, 슬라브 서사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형태 특성 중 포스터는 무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인물 또는 주제와 이를 표현한 풍부한 장식요소들, 그리고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선의 표현 및 레터링의 활용이 나타났다. 장식 패넬의 경우 패넬을 구성하는 일러스트 중앙에 주 모티프가 되는 인물이 있고 그 주위를 식물들이 화려하게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슬라브 서사시는 기존 그의 작품에 나타났던 뚜렷하고 간결한 윤곽선의 표현이 아닌 얇고 부드러운 선의 표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색채 특성 중 포스터는 대체로 lt, litg 색조의 다양한 색상을 통한 부드럽고 신비로운 이미지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식 패넬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p, b, lt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w와 파스텔 톤의 R, Y, BG, GY, PB 색상들의 배색을 통해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슬라브 서사시』의 색채 특성은 주로 dkg, g, d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어두운 B, PB, P, BG 색상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셋째, 구도 특성 중 포스터는 화면 상단부에 레터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중심에 위치한 여인의 머리, 그리고 그 뒤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 또는 반원의 형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꽃과 모자이크,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 문양이 있으며, 주 모티프가 되는 여인의 전신이 수직으

로 배치된 구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장식 패넬에서 보이는 구도 특성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인물을 다양한 포즈를 통해 비대칭으로 구성하고, 그 인물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슬라브 서사시』는 작품 속의 중심이 되는 인물과 배경이 되는 인물을 명암, 또는 색채, 형태 등에 차이를 주거나 화면에 중간에 사물을 배치하여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알폰스 무하의 작품 중 6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이에 나타난 모티프를 회화작품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에서 보여지는 반복 배열, 중첩, 재배열의 방법을 통해 재구성하여 4개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이때 텍스타일 디자인은 무하의 포스터와 장식 패넬에 나타난 형태 특성 중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티프와 뚜렷하고 두꺼운 윤곽선의 사용 및 레터링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톤의 R, Y, YR, B, PB, P 등의 색상들을 활용하여 몽환적이면서도 만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과 장식 패넬에서 보여지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비대칭 요소를 의상의 실루엣에 적용하여 스트리트 캐주얼 스타일과 페미닌한 요소를 혼합한 트렌디한 감성의 룩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감성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통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무하의 작품과 다양한 예술작품을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Chin, J. K. (2017, July 21). 19세기 서양미술사 [19th century western paintings history]. N.AVER. Retrieved October 9, 2018,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11885&cid=59556&categoryId=59556>
- Cho, M. S. (2005). *Alphonse Mucha*. Seoul: Jaewon.
- Ferebee, A. (1983). *A history of design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Yoo, K. J., Trans.). Gwangju: Chungwoo.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Jang, W. J. (2017). *Alphonse Maria Mucha*. Seoul: chackwoori.
- Jung, S. A. (2015). *Study on the expression of women image through Art Nouveau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Kim, E. H.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ortrait of a successful artist, Alphonse Mucha]. Seoul: Culturegrapher. doi:10.978.897059/6563
- Kim, N. H. (2016). *A study on Art Nouveau pattern hair design based on Alphonse Mucha's artwork: Focusing on making a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 Kim, N. H., & Kwon, G. H. (2015). Study on hair accessory development with the motif of Alphonse Mucha's works.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9(3), 7-17.
- Lee, D. M. (2005). *Alphonse Mucha & Sarah Bernhardt*. Seoul: Jaewon.
- Naver encyclopedia. (n.d.a). Alphonse Mucha. Naver. Retrieved October 4, 2018,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606&mobile&cid=40942&categoryId=40495>
- Naver encyclopedia. (n.d.b). Art Nouveau. Naver. Retrieved October 9, 2018,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2762&cid=42822&categoryId=42822>
- Park, S. J., & Han, J. S. (2014). A study on make up illustration of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style: Focused 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Alphonse Mucha's 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41(-), 35-46.
- Shin, I. S., & Yoon, J. (2001). The study on textile pattern shown in Art Nouveau. *생활자원개발연구*, 3(-), 127-146.
-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Andrew GN. (n.d.).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andrew-gn/#0:24>
-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Donna Karan. (n.d.).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9/12/ready-to-wear-2015-ss-donna-karan/#0:62>
-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Moschino. (n.d.).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9/19/ready-to-wear-2015-ss-moschino/#0:14>
- Spring/Summer 2018 Ready-to-wear Versace. (n.d.).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23/spring-2018-versace/#0:60>
- Spring/Summer 2019 Ready-to-wear Vivienne West Wood. (n.d.). *VOGUE*. Retrieved December 29, 2018, from <http://runway.vogue.co.kr/2018/10/11/ready-to-wear-2019-ss-vivienne-westwood/#0:35>
- 'The Slav Epic' cycle No.1: The Slavs in Their Original Homeland.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s/object/212>
- 'The Slav Epic' cycle No.3: Introduction of the Slavonic Liturgy in Great Moravia.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s/object/213>
- 'The Slav Epic' cycle No.11: After the Battle of Vitkov.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object/222>
- 'The Slav Epic' cycle No.14: The Defence of Sziget by Nikola Zrinski.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s/object/225>
- 'The Slav Epic' cycle No.16: Jan Amos Komenský.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object/227>
- 'The Slav Epic' cycle No.17: The Holy Mount Athos.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object/230>
- 'The Slav Epic' cycle No.20: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ity. (n.d.). *Mucha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8, 2018, from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search-works/display/results/object/231>
- Tomoko, S., & Seon, J. U. (2016). *Alphonse Mucha, pioneer of modern graphic design*. Seoul: Culture & I Leaders. doi:10.979.11952998/81
- Ulmer, R. (2005). *Alfons Mucha* (Lee, W. J., Trans.). Seoul: Maroni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Wikipedia. (n.d.). 아르누보 [Art Nouveau]. *Wikipedia*. Retrieved October 18, 2018,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5%B4\\_%EB%88%84%EB%B3%B4](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5%B4_%EB%88%84%EB%B3%B4)
- Woo, H. J. (2015). *Art mask research us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the painting of Alphonse Much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Yang, J. C. (1997). *The study of Alphonse Mucha's graphic works of motifs and 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Yoo, S. R. (2000). *A study of fashion design manifested in art nouveau by employing plants as a motif*.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on, J. S. (2003). *A study on the textile design which utilizes Alphonse Mucha's work: Focused on the fashion access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The Development on the Fashion Design Using Alphonse Mucha's Works

**Shin, Haram • Yum, Misun<sup>+</sup>**

Master, Dept. of Clothing, Sung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Sungshin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Alphonse Mucha's works and case of modern fashion design using art painting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his art pieces and also, develop innovative fashion design using his distinctive style and artistry. Literatur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scover his lifetime, backdrop and oeuvres and then, empirical study helped to classify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his art paintings with form, color and composition in order to analyze how his paintings were re-interpreted for the costume, especially modern fashion design and create my art piec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Alphonse Mucha was a pioneer leading art nouveau which is one of important art trends in the European art history and made breathtaking art pieces in art nouveau style based on his distinctive formativeness. His paintings could be classified into poster, decorative panel and Slave epic in a rough way and characterized by use of organic curves and strong decorate characteristics full of expression in general. After analyz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his art pieces with form, color and composition, a total of 4 textile designs were developed and then, 8 fashion designs were made in this study, inspired by gentle curves, clear and definite lines and lettering presented i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right, cheerful colors found in the color characteristics; and asymmetrical elements in th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as well.

Such research results suggested limitless possibility of creation through art pieces by using Alphonse Mucha's art pieces into the fashion design as the present age demands artistic, innovative and sentimental design.

Key words : Alphonse Mucha, Art Nouveau, fashion design

